제15강 마르크스, 프롬, 붓다 [그룹 프로젝트]

-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

(1교시) J_stJo01_031213_3_01

1. Marxism 과 행복론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 칼 마르크스

맑스는 행복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라는 견해에 반대했다. 맑스에 있어 개인의 의식, 심리, 사고의 틀 등은 사회 구조의 영향에 의해 정립된다.
즉, 사람들이 어떤 사회,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람 됨됨이도 달라진다.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끌어낸 체제다. 그러나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체제다." - 토니 클리프

"공산주의 사회란 모든 사회의 발전이 개인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고, 개인의 발전이 모든 사회 발전의 전제 조건이 되는 사회다." - 칼 마르크스

결국 맑스는 인간이 불행하고, 인간이 악해지는 이유를 사회의 구조에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맑스는 인류가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구조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민중에 의한 철저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경제 분야에까지 적용되는 것, 그래서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에서 비로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 역시 유희와 구분되지 않고 자아실현과 일치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욕망의 문제들이 그 형태를 달리할 것이다. 김규항이 이야기한대로, "사회주의는 인간이 인간의 영혼을 이야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2교시) J_stJo01_031213_3_02

2. 인간존재와 만나는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세기 니체: **"신은 죽었다"**
20세기 프롬: **"인간은 죽었다"**
이는 곧 인간의 도구화, 사물화를 뜻함.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점차 수동적으로 변하고 자신의 삶을 어떤 욕구로 동기화한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며 탐구하는 본성을 잊어버리고 소유함으로써 삶의 양식을 채워나간다.
사회는 '소유'를 중요한 척도로 제시하고 개인은 그 안에서 조건화된 기준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으며 소유를 강화하고 집착한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 속한 개인은 여러 공통적인 징후, 고뇌를 갖게 되며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동료로부터의 소외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즉, 끊임없는 불행을 느낀다.
소유는 개인적 차원에서든 사회적 차원에서든 끊임없이 조건화되고 강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롬은 전지전능의 자기애적 태도를 버리라고 말한다. 이는 나르시시즘의 단절을 극복하여 평안한 상태의 이성으로 나와 사물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나 자신과 타인,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반응을 나타내고 응답하는 있는 그대로의 전인(全人)으로서의 '나'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인으로서의 '나'는 자기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프롬은 거기서 정신분석이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의식을 통해 무의식을 알아가며 우리는 바로 그 행위로 하여금 자기를 변형시킨다. 이런 전인으로서의 '나'는 자기애적 장벽을 허물면서 태어나기 이전의 퇴행, 통일로서의 퇴행을 벗어나 존재에 대한 물음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다.
이런 전인으로서의 '나'는 소유의 장벽을 허물면서 관계의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욕구가 채워지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소외는 극복된다. 프롬은 이런 **자기소외의 극복과 존재로서의 삶의 모델로서 기독교와 불교의 위대한 사상을 제시**한다.
자신이 고통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자신의 생활을 바꿈으로써 인간은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3교시)

3.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교에서 제시한 방법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현재 인간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모두 개인의 과거의 업에 의한 것으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붓다의 깨달음은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인과율의 법칙, 즉 12緣起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련되어 성립하므로 이들 원인이나 조건이 없다면 자연히 결과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결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나 조건이 되어 또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도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물같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변화하지 않는 실체는 있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실천적으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토대로 하여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 그것을 소멸시킴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붓다가 깨달은 것인데 이러한 현상과 현상 사이의 법칙을 꿰뚫어 보는 것을 불교에서는 明(명)이라 한다. 그리고 明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無明(무명)이다.

12연기는 구체적으로 ‘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입(六入)↔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의 단계를 말하며 이것은 인간의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이러한 12연기의 과정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불교에서는 현실에서의 삶이 고통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물론 깨달은 자가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삶이 고통이라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불교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는 윤회를 받지 않는 것, 즉 깨달음을 얻어 해탈해야 한다고 한다. 깨닫기 위한 조건으로 ‘계(戒).정(定).혜(慧)’의 수행방법을 이야기한다. ‘계(戒)’와 ‘정(定)’을 통해 ‘지혜(智慧)’를 얻었을 때 비로소 12연기에서 벗어나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